

TRADE BRIEF

동향분석실
김 건 우 연구원

02-6000-5106, astronaut@kita.net

한국무역협회
국제무역연구원

iit.kita.net

2018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
- 환율에 대한 인식 및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-

올해 수출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국제무역연구원이 실시한 ‘2018년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전망 조사’에 따르면, 응답 기업의 91.4%가 내년에 올해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중 68.2%가 0~10%의 수출증가를 예상했다. 한편, 2018년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가 가장 많이 선택되어(응답 기업의 48.4%) 수출 기업들은 최근 환율 하락이 내년도 수출 채산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어 글로벌 경쟁 심화(25.1%)와 미국·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(16.0%)를 주요 이슈로 손꼽았다.

수출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환율을 달러당 1,090원으로 응답했으며, 절반 이상의 기업이 현재(12월 5일 기준)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업(77.4%)이 수출단가 조정을 통한 환차손 보전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, 58.4%의 기업이 환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. 특히 환율 관련 사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8.6%에 불과했다.

01. 연구 배경

◎ 2018년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환경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기업 514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

- 응답기업 514개 중 77.4%는 중소기업, 18.7%는 중견기업, 3.9%는 대기업으로 구성

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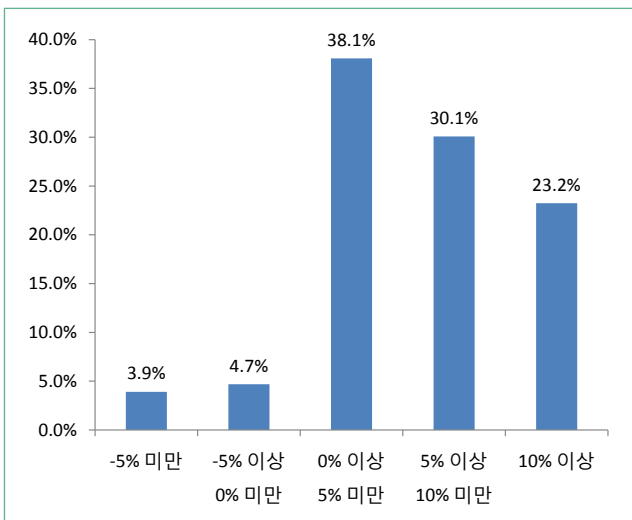
- 조사 대상 : 2016년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 기업
- 응답자 수 : 514개사
- 조사 기간 : 2017년 11/27 ~ 12/1
- 조사 방법 : e-mail 온라인 설문

02. 수출업계의 2018년도 경영환경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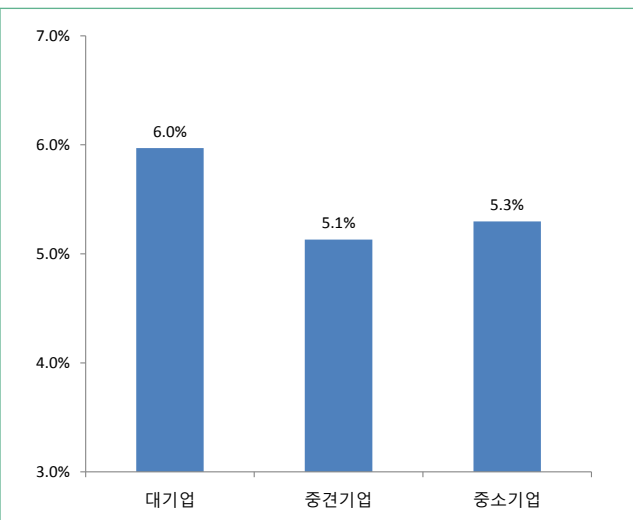
◎ 대부분의 무역 업체는 내년에도 수출 회복세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

- 응답 기업의 91.4%가 내년에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 응답했고, 특히 이중 23.2%의 기업은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봄
-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 6.0%, 중견기업 5.1%, 중소기업 5.3%로 규모와 큰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5~6%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2018년 수출 증가율 전망



기업규모별 평균 수출 증가율 전망



- 의료·정밀 및 광학기기, 반도체, 기계류 등의 수출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조사된 반면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, 전기·전자제품, 농수산물 등의 수출은 2018년에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나타남

* 2018년 예상 수출 증가율이 5%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의료·정밀 및 광학기기(71.9%), 반도체(66.7%), 기계류(64.0%)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상 수출 증가율이 0%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(33.3%), 전기·전자제품(13.5%), 농수산물(10.6%) 등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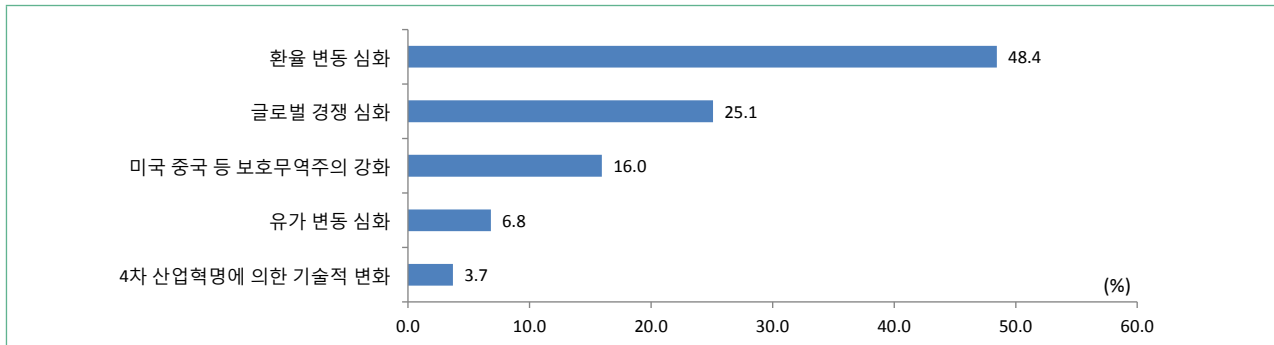
수출 호조 품목과 부진 품목

순위	수출 호조 품목 (증가율 5% 이상)		수출 부진 품목 (증가율 0% 미만)	
	품목명	응답 비중	품목명	응답 비중
1	의료·정밀 및 광학기기	71.9%	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	33.3%
2	반도체	66.7%	전기·전자제품	13.5%
3	기계류	64.0%	농수산물	10.6%

● 기업들은 환율 변동 심화가 내년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

- 2018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로 절반에 가까운(48.4%) 기업들이 환율 변동 심화를 꼽았으며, 글로벌 경쟁 심화(25.1%)와 미국·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(16.0%)가 그 뒤를 이었음

2018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



- 전체 15개 중 14개의 수출 제품군에서 환율 변동 심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응답 기업의 70.2%가 환율 변동 심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하여 환율 변동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

2018년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(수출 품목별 응답률)

수출 품목	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적 변화	글로벌 경쟁 심화	미국·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	유가 변동 심화	환율 변동 심화
가전	0.0%	33.3%	16.7%	0.0%	50.0%
기계류	5.3%	29.3%	13.3%	0.0%	52.0%
농수산물	2.1%	8.5%	14.9%	4.3%	70.2%
반도체	16.7%	33.3%	0.0%	8.3%	41.7%
생활용품	3.0%	42.4%	21.2%	3.0%	30.3%
석유제품	0.0%	0.0%	0.0%	50.0%	50.0%
선박	0.0%	16.7%	16.7%	16.7%	50.0%
섬유, 의복 및 가죽제품	0.0%	20.4%	18.5%	7.4%	53.7%
의료, 정밀 및 광학기기	6.3%	37.5%	9.4%	0.0%	46.9%
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	2.1%	29.2%	22.9%	0.0%	45.8%
전기, 전자제품	9.6%	25.0%	9.6%	7.7%	48.1%
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	0.0%	23.1%	13.5%	11.5%	51.9%
플라스틱 및 고무제품	4.3%	21.7%	13.0%	15.2%	45.7%
화학공업제품	0.0%	19.0%	28.6%	19.0%	33.3%
무선통신기기 및 부품	14.3%	28.6%	28.6%	0.0%	28.6%

주1 : (품목 응답률) = (품목 기업 중 특정 응답을 선택한 기업 수) / (품목 기업 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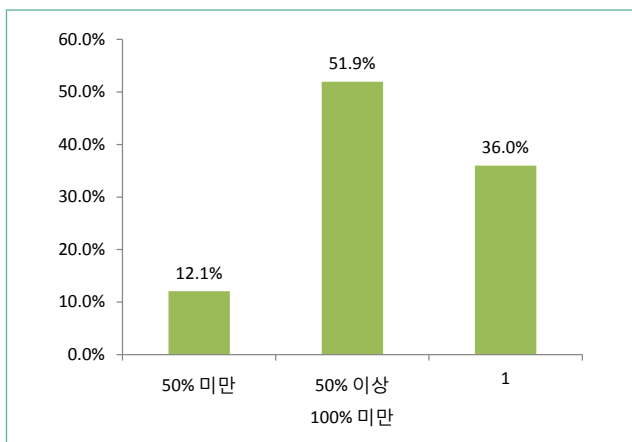
주2 : 각 품목별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을 어둡게 칠함

03. 수출기업의 환율에 대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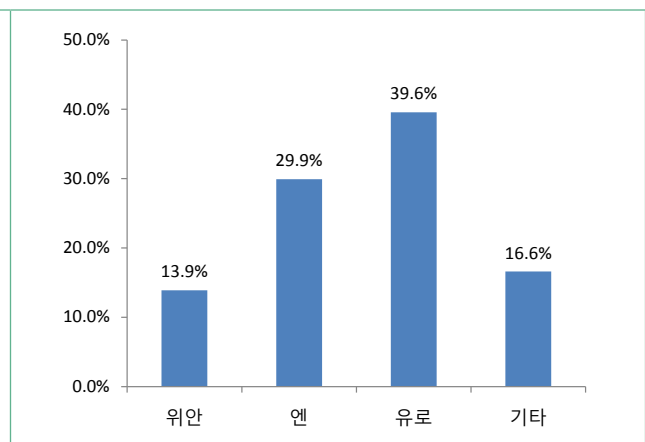
◎ 대다수의 응답 기업은 달러를 주 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있음

- 달러의 결제 통화 비중인 50%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87.9%에 달했으며 36.0%의 기업은 오직 달러만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
- 달러 다음으로 빈번하게 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통화는 유로(39.6%), 엔(29.9%), 위안(13.9%) 순으로 나타남

달러의 결제통화 비중



기업들의 제2결제통화* 비중



* 달러를 주 결제통화로 사용하며 복수의 결제통화를 사용하는 기업(331개)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통화

◎ 2018년 사업계획 환율은 평균 1,090원/달러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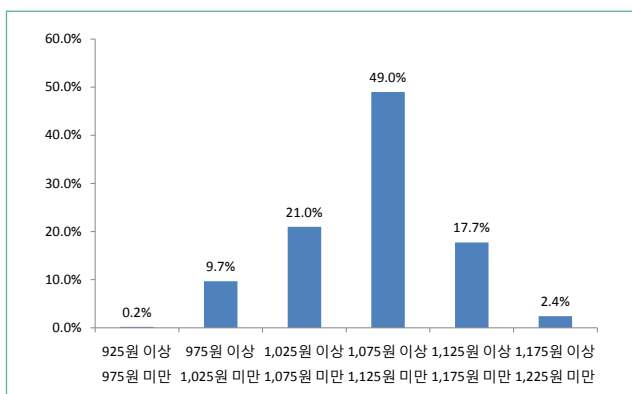
- 최근 환율이 사업계획 환율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 등 경영 차질을 겪을 것으로 예상

* 원/달러 환율 추이(평균, 시가 기준) : ('17.9.29)1,146.7 → (11.1)1,121.2 → (12.1)1,085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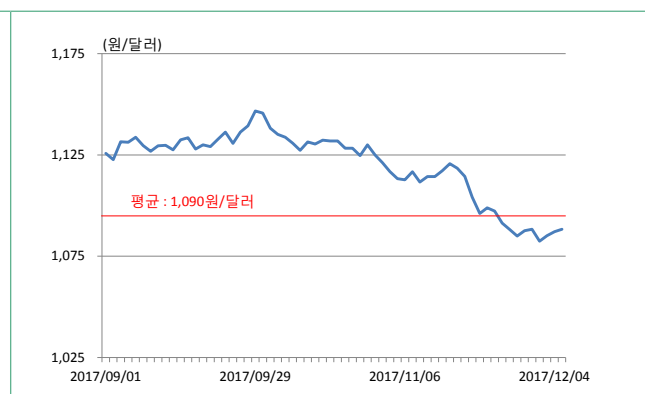
- 응답 기업의 49.0%가 내년도 사업계획 환율로 1,075원 이상 1,125원 미만을 제시함

* 사업계획 환율 : 사업년도 말 다음 해 사업계획 작성시 수립하는 환율

사업계획 환율 분포(원/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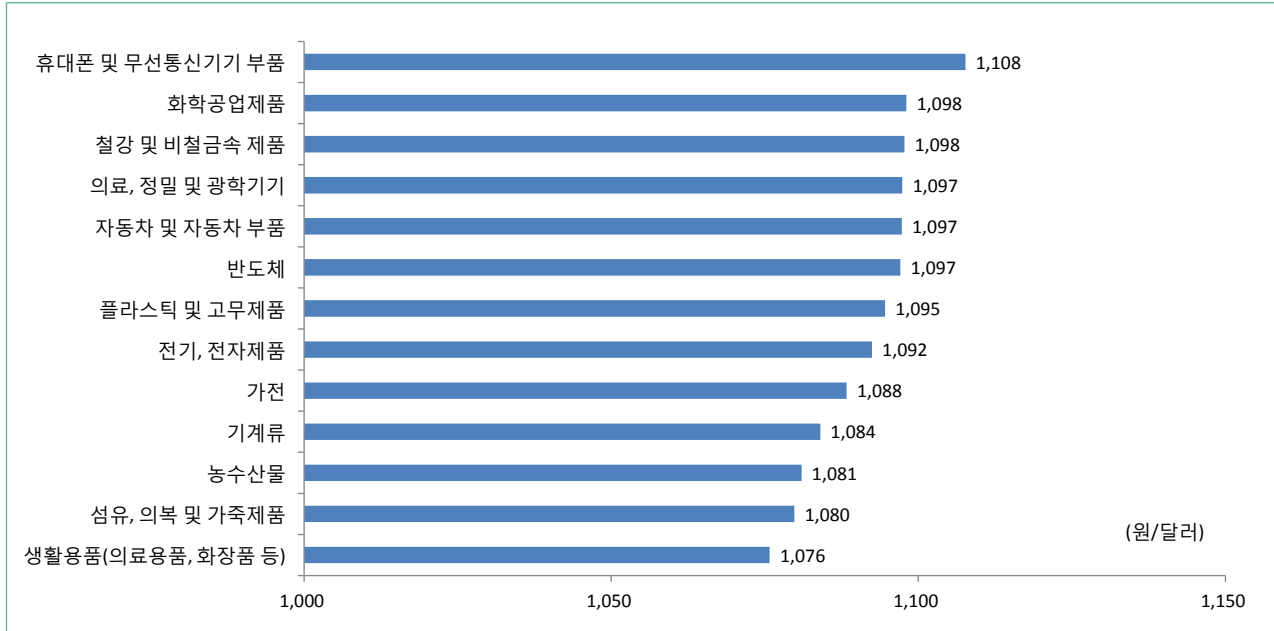


최근 원/달러 환율 추이



- 품목별로는 휴대폰 및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 기업들의 사업계획 환율이 평균 1,108원/달러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생활용품 수출기업들은 평균 1,076원/달러로 가장 낮은 값을 응답함

품목별 평균 사업계획 환율



주 : 응답 기업 수가 5개 이하인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

◎ 절반 이상의 응답 기업들이 현재(12월 5일 기준)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

- 응답 기업의 67.9%가 적어도 1개 이상의 결제통화에 대해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함
- 특히 엔화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70.9%, 달러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65.6%가 각각 환차손을 보고 있다고 응답하여 엔화와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사됨

결제통화별 환차손을 보고 있는 기업의 비중

통화	통화 사용 기업 수	환차손을 보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수	비율
달러	482	316	65.6%
위안	49	24	49.0%
엔	110	78	70.9%
유로	102	45	44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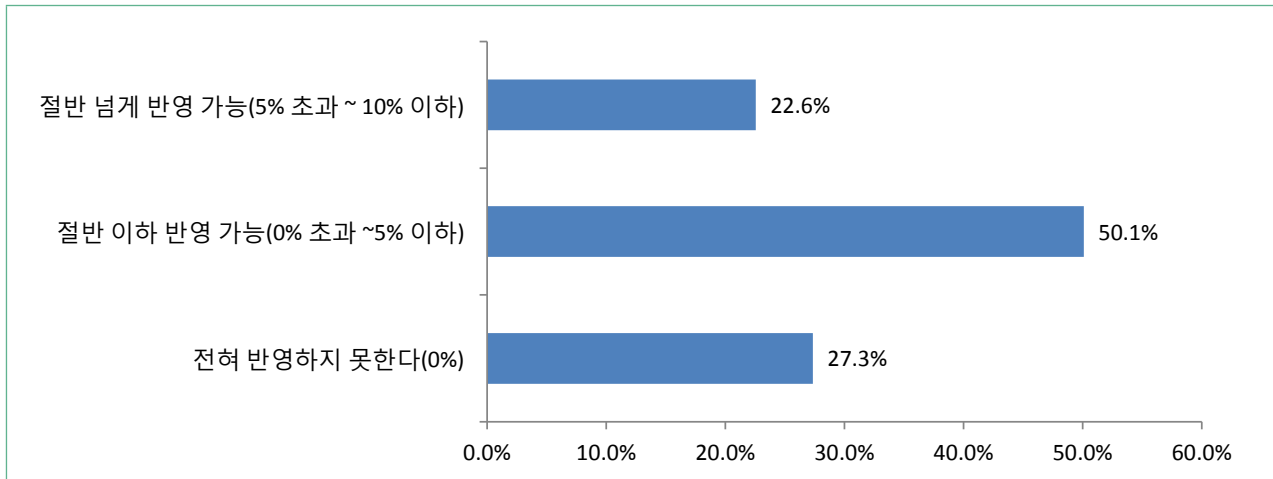
주 1 : 2017년 12월 5일 매매기준환율(1,088.3원/달러) 기준

주 2 : 복수응답 가능 문항

● 응답 기업의 77.4%는 원화 절상에 대해 절반 이하만 수출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
 단가 조정을 통한 환차손 보전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
- 환율 10% 하락시 수출상품 단가에 몇 %p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27.3%는 전혀
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50.1%는 0~5%p만 반영 가능하다고 응답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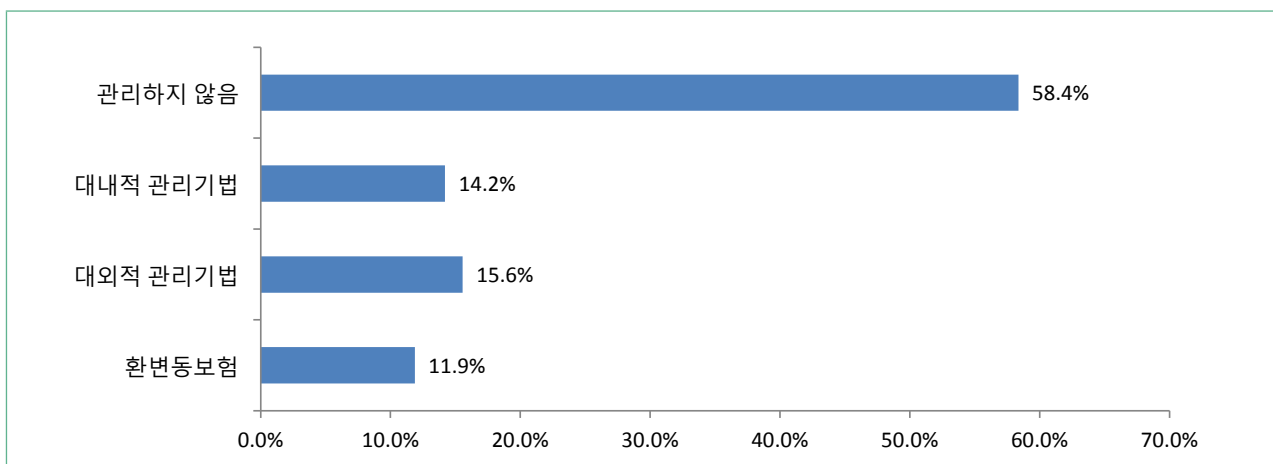
10% 환율 하락에 대한 수출 단가 반영 가능성



● 그럼에도 환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 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

- 주요 환리스크 관리 기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58.4%의 수출기업은 어떠한 형태로도
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함
- 대외적 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15.6%, 대내적 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14.2%로
 조사되었으며 환변동보험을 활용하는 기업은 11.9%에 그침
 - * 대외적 관리기법 : 선물환 거래, 통화선물 거래 등 외부 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
 - * 대내적 관리기법 : 매칭, 리딩과 레깅 등 기업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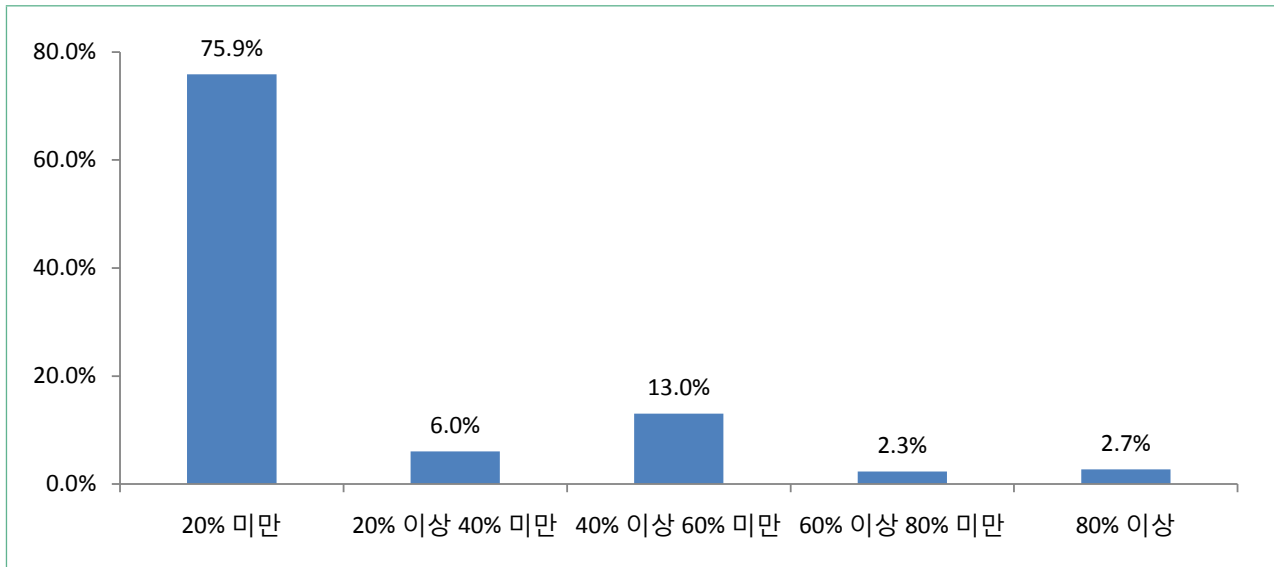
수출 기업들의 주요 환리스크 관리 기법



● 대다수 응답기업들의 환해징 비율이 낮아 환리스크에 노출된 무역액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

- 응답기업의 75.9%는 무역액 대비 환해징 비율이 20%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60%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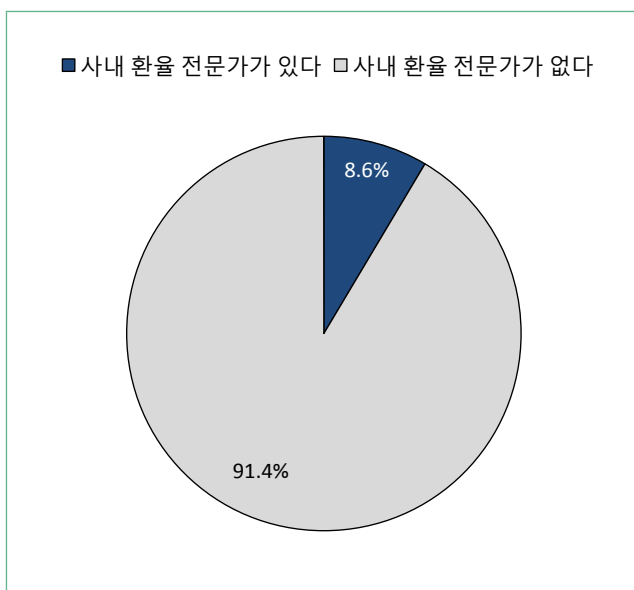
수출기업들의 무역액 대비 환해징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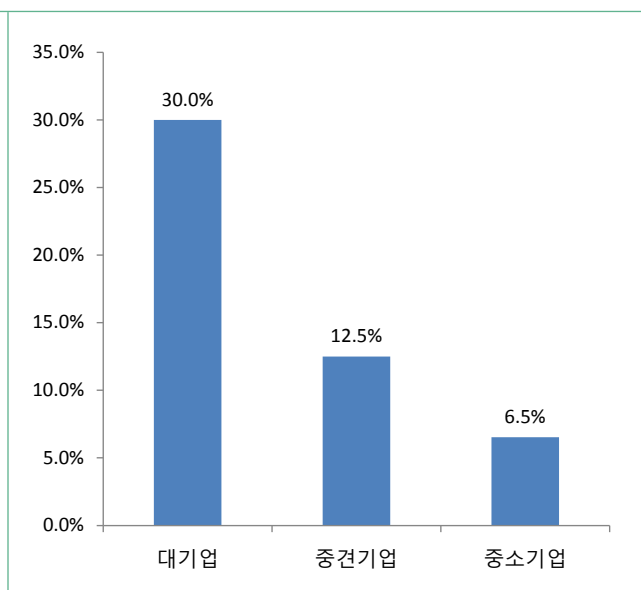
● 환율 관련 사내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은 8.6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

- 기업규모별로 보면 사내에 환율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기업의 비율은 30.0%인 반면 중견기업은 12.5%, 중소기업은 6.5%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환율 관련 전문 인력 보유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

사내 환율 전문가 보유 여부



기업규모별 사내 환율전문가 보유율



05. 결론 및 시사점

- ◎ 응답 기업 대부분은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- 응답 기업의 91.4%가 올해 대비 플러스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~6%의 수출 증가율을 예상함
- ◎ 수출 기업들은 2018년 경영환경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(응답 기업의 48.4%)를 꼽아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됨
 - 글로벌 경쟁 심화(25.1%)와 미국·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(16.0%)가 그 뒤를 이음
- ◎ 수출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환율을 달러당 1,090원으로 응답하여 최근 환율 하락 추세를 감안했을 때 상당수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 등 경영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
 - 또한 절반 이상의 기업이 환차손(12월 5일 기준)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됨
- ◎ 대다수의 응답 기업(77.4%)이 수출단가 조정을 통한 환차손 보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58.4%의 기업이 환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율 하락이 기업 경영의 부정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75.9%의 기업의 환헤징 비율이 2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 기업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
 - 환율 관련 사내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은 8.6%에 불과하여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율전문가 육성 및 관련 컨설팅 강화가 필요함